

태양광사업 기부 체납방식 논란

완주군 태양광발전설치 기부방식 · 사용기간 등

완주군이 태양광발전설치를 위해 삼례 공공 하수 처리장 부지를 임대해 준 가운데 기부방식 · 사용기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사업은 완주군과 서울 H 태양광 모듈업체 · 시공사 광주 S 전기에너지사가 2015년 12월 4일 업무협약서를 체결 했으며, 2016년 3월 10일 특수목적법인(완주 N 업체)을 설립하고, 지난 6월 27일 실시 협약을 체결 했다.

사업 방식은 BOT (임대기간은 10년, 1차에 한해 7년 연장가능) 최장 17년 민간투자자가 운영한 후 완주군에 기부 체납이며, 사업비 약 16억원, 사업량 800Kw, 연간 임대료는 1,500 만원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기부방식 · 사용기간 등이 이대로 추진 될 경우

완주군에 재산적 피해가 우려 된다는 것. 제보에 의하면 "완주군은 하수 처리장에 완주특수법인 N 업체에게 사용임대 기간을 10년으로 계약 했으며, 1차에 한해 7년 연장 가능하게 했다"면서 "계약은 누가 보아도 17년"을 계약 한 것과 마찬 가지다.

또한 "태양광을 17년을 사용하고 완주군에 기부 할 경우 폐기된 쓰레기"를 받는 것과 같다.

따라서 "완주군이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업자에 시설 철거와 의무 비용을 면제해 줄 뿐 아니라 군민에 해를 끼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7 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완주=이종복기자

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완주군이 보수 유지비를 부담 할 수 있다"면서 "완주군에 손해가 날수도 있으며, 재정 수입에 전혀 이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완주군 관계자는 "임대기간은 가평군과 동일하게 10년으로 했으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7년은 상황이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계약을 연장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또한 기부 체납은 "완주군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기부를 안 받"을 수 있다.

시설 철거에 대해서는 "착공 시 비용을 담보하는 이행 보증보험을 제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7 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완주=이종복기자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 예산 70억원 반영

태권전 · 명인관 건립 등 상징지구 조성에 필요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이하 재단)은 태권도인들의 숙원이자 태권도원 성지화의 상징인 '태권전'과 '명인관' 건립 등 "상징지구"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 예산 70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예산 확보로 종주국으로서의 태권도 철학과 정신세계를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공간인 "태권전"과 "명인관" 등 상징지구 조성에 바짝 다가갔다.

70억원의 예산이 확보됨에 상징지구 조성에 필요한 176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재단이 그동안 모금한 26억원의 기부금과 국가원(30억) · 대한태권도 협회(20억) · 전라북도 및 무주군(30억)의 기부 예정액 등 상징지구 조성

에 필요한 사업비가 100% 확보됐다.

이번 예산확보는 정부와 국회 등의 노력과 더불어 모든 태권도인의 열망과 지혜가 합쳐져 이루어진 성과이다.

특히, 2015년 5월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를 찾아 "2017년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회유치 노력을 기울인 송학진 전라북도지사와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등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번 상징지구 예산안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재단은 내년 6월 태권도원에서 열리게 될 "2017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세계 180여개국 2천여명의 선수단과 관람객들에게 태권전과

명인관 건립을 향한 열정과 성의를 보임으로써 상징지구 조성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다시금 태권도원을 찾게 할 계획이다.

재단 이사장은 "상징지구 조성을 위해 몸과 마음으로 재단과 뜻을 함께 해준 국내 · 외 태권도인들과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재단은 앞으로 상징지구가 갖는 대표성을 무겁게 느끼며 대한민국의 혼과 태권도의 정신철학을 담은 성지로서의 태권도원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향후 재단은 태권도인과 건축가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징지구 건립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에 걸맞는 상징지구 조성 방향 등을 설정 후 공사를 진행해 갈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배출업소 환경관리 대회 환경부장관 기관상 수상

정기점검 · 갈수기 등 실시

장수군 환경위생과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2016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2015년 환경오염배출시설 환경관리 실태평가 결과 환경부장관 기관상과 포상금 5백만원을 수

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관내 대기 · 폐수배출업소 50개소에 대해 정기점검과 갈수기, 장마철, 명절대비 등 수시점검을 실시 했다.

이에 미신고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등 2개소를 검토 및 해결 완료했고, 4개 위반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 환경

오염배출시설 지도 · 점검 강화, 자율점검업소 지정관리,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부분에서 인정 받아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류지봉 과장은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자연환경보전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



진안홍삼, 전북현대 우승의 숨은 힘

10년만에 ACL 우승 달성... 8년째 홍삼 복용

10년만에 ACL 우승을 달성해 아시아 챔피언에 다시 등극한 전북 현대 모터스 축구단의 승리 뒤에는 '진안고원 진안홍삼'의 숨은 힘이 있었다.

5일 진안군에 따르면 축구단에 2009년부터 진안홍삼을 후원해 8년째 복용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어 진안홍삼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특히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는 K리그 클래식 경기와 병행하는 강행군 속에서 거둔 성과로 국내외를 오가며 혹독한

일정을 진안홍삼으로 버텼다는 후문이다.

전북현대에는 홍삼을 지원받는 대신 홈경기 시 경기장 전광판과, LED보드 등을 통해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진안홍삼을 홍보해준다.

올 시즌 전주월드컵경기장엔 K리그와 FA컵, AFC 챔피언스리그 3개 대회에서 홈경기 관중 46만 8,070명(경기당 1만 6,717명)이 찾았다. 전북은 K리그 관중 동원에서는 FC 서울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대형트리 점등식 개최

성탄메시지 선포 등 시간가져

무주군은 5일 군청 분수대 광장에서 대형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 기독교 연합회(회장 최만규 목사)와 무주군청 선교회(회장 김홍수)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과 군 공무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점등식에 앞서 전통문화의 집에서 개최된 기념행사에서 성탄 메시지 선포와 특별찬양 등의 시간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황 군수는 "작은 불빛

에 담긴 우리들의 마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하는 큰 횃불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 시간이 올 한해 건강하게 잘 살아온 서로를 격려하고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위한 든든한 동력이 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군청광장 분수대에 설치된 트리는 '99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해 연등탑과 함께 무주군 명물로 인식되고 있다. 올해는 높이 9m, 둘레 24m의 철재 빔 원추 형태로 설치돼 내년 1월 31일까지 불을 밝히며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한 볼거리를, 주민들에게는 훈훈함을 전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특별블리스

황정수 무주군수 협업 중요성 강조

황정수 무주군수가 5일 열린 12월 월례 조회를 통해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황 군수는 "업무 처리할 때 '우리'와 '현재', '공동'에 염두를 두고 관련 부서가 함께 일을 추진한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며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달인 만큼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AI저탄을 위해 시육농가 관리와 출입제한 홍보 등 방역대책에 철자를 기하고 △공직직급 확립과 △어려운 이웃돕기 △등걸기 시설점검에도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 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농촌지도자무주군지도자회 임용식 회장이 우수농업인 유공포장을 받았으며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지사장 박정희)가 자원봉사 유공포장을 수상했다.

또 "사람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는 영상을 시청과 함께 (주)베리굿정리컨설팅 윤선현 대표(저서_ 하루 15분 정리의 힘, 관계정리가 힘이다.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 등)로부터 "하루 15분 정리의 힘"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펼쳐져 2백여 명의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계면-창원시 회원1동 자매결연

장수군 장계면 자매결연 행사가 지난 2일 장계면내 레스토랑 장수목장에서 창원시 회원1동과 이대근 회원1동 주민자치위원장, 송원영 장계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이경규 회원1동장, 주성덕 장계면장의 장계면주민자치위원 및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장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매결연지인 창원시 회원1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초청해, 장수목장투어를 기점으로 논개생지기 일대를 관광했다.

송원영 장계면주민자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매 결연을 맺은 창원시 회원1동과 특산물을 서로 홍보하며 진정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면관계자도 "앞으로 장계면민과 회원1동인 모두가 함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화합과 결속으로 농특산물의 판로확장까지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자매결연 행사에서는 회원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장계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 자매 결연패를 교환하면서 자매결연의 의미를 다졌다./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박명석 의장 방역현장 방문

진안군의회 박명석 의장은 지난 2일 진안읍과 성수면에 설치된 고병원성AI 차단방역 검문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보고 받고,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소정의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고병원성AI는 지난날 16일에 발생하여, 지난 1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총 29건의 신고가 접수돼 24건에 대해 고병원성 AI(H5N6)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발생 지역으로는 6개 시·도 13개 시군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이날 박명석 의장은 "농가에서는 AI 바이러스가 농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주시기를 바라며, 군민들께서도 철새도래지·가금농장 방문 자제 등 AI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